

해외동향

지역부흥협력대를 통해 청년의 농촌 정착과 농촌 활성화 도모

참고문헌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.5
이근우,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2019

농산어촌 이주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부흥협력대를 2009년부터 시행¹⁾

- 일본의 인구는 2004년(12,784만 명)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, 2019년 현재 일본의 인구는 12,615만 명으로 2004년 대비 약 170만 명 감소함
- 향후 일본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, 일본의 인구는 2050년에 약 9,515만 명, 2100년에는 4,711만 명으로 현재에 비해 크게 줄어듦 전망임
- 일본 정부는 2060년에도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, 2014년 '마을, 사람, 일' 창생 종합비전과 종합전략을 발표하였으며, 이 전략에는 '취업, 결혼, 육아 등 청년들의 희망을 실현', '동경권 인구집중을 억제', '지역 일자리 창출' 등과 같은 농어촌의 인구 유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
- 인구 감소로 인한 시정촌의 소멸 및 쇠퇴를 막기 위해 청년층을 시정촌에 이주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, 2009년도에 '지역부흥협력대'를 제도화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대원의 지역 협력 활동과 지역 정주정착을 위한 지원 실시²⁾

- 도시에서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지역 브랜드 및 지역 특산물 개발·판매·PR 등 지역 부흥 지원, 농림수산업 등을 조사하여 주민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 협력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정주정착을 도모하고자 함
- 대원은 각 지자체의 위촉을 받으며 임기는 1년 이상 3년 미만임
- 2021년도는 약 6,000명의 대원이 전국에서 활동, 2026년까지 10,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
- 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조건, 대우 등은 모집 지자체마다 다양하나, 총무성에서는 대원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1인당 480만 엔을 상한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
- 임기 중에는 지자체·서포트데스크 등을 통해 상담, 대원을 위한 각종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. 임기 후에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제도가 있음

[케센누마시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지역부흥협력대 모집 공고]



출처: <http://k-ships.com/recruit/2789/>

[지역부흥협력대 모집 정보 찾기의 활동 카테고리]

농림수산·산업	농림수산업 종사, 지역상품 판매, 자산지소 추진 등
환경	수원지 정비, 도로 청소 등
의료·복지	지켜보는 서비스, 병원·쇼핑 등의 이동 서포트 등
관광	지역의 매력 PR, 관광 루트 기획 입안, 내방객 지원 등
교육	학교 행사 지원, 어린이와의 교류 활동 등
정보통신	정보통신기술의 보급 활동 등
지역 만들기	지역 행사, 전통 예능의 응원, 도시와의 교류 사업의 응원 등
스포츠	-
빈집	-
기타	소방단·청년단체의 참가, 지역 시설의 운영 보조 등

출처 : <https://www.iju-join.jp/chiikiokoshi/search.html>

1) 이근우. 2019.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본 지자체 사례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2) 한국농촌경제연구원. 2023.2.6.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.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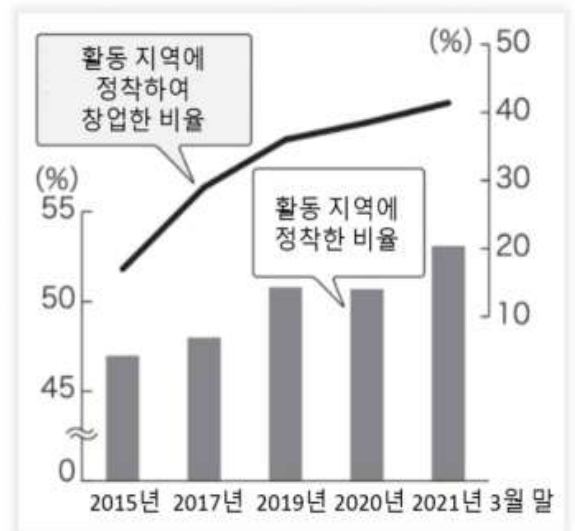
지역부흥협력대 사례 : 빈집 알선 나서 인구 증가, 계단식 논은 지역명소로 변신³⁾

- 1980년대말 한때 8,000명을 바라보던 지하야아카사카촌의 인구는 계속 줄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5,000명선이 붕괴될 처지에 놓였음
- 위기감을 느낀 주민들은 3~4년 전 지하야아카사카촌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힘을 모으기 시작해, '지역부흥협력대'를 출범시키고 빈집과 경작 포기지 문제에 적극 대응함
- 2명으로 구성된 지역부흥협력대는 지역의 모든 빈집 현황을 파악한 뒤 이곳으로 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함. 이들은 단순히 빈집을 인터넷뱅크를 통해 알리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중재·알선에 직접 나섰다
- 월 1만~2만엔(10만~20만원)으로 살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도시민들에게 이곳은 새로운 활로가 되었고, 지하야아카사카촌은 인구가 최근 증가함
-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계단식 논도 지역부흥협력대원들과 이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음

지역부흥협력대, 임기를 마친 협력대원의 정주가 증가⁴⁾

-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, 2021년 3월 말까지 임기를 마친 협력대원 중에서, 활동 지역에서 약 53%가 정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이는 최근 5년간에 6%p 증가함
- 업무 형태는 농산물 통신판매 및 6차 산업화를 포함한 창업이 가장 많음
- 창업은 전통주택 카페, 농가 레스토랑 등 음식업, 농가민박,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, 수렵육가공 및 판매 등 6차 산업, 농작물 통신판매 등 소매업, 투어 안내, 일본문화체험 등 관광업, 마을 지원, 지역 플랜 수립 등 마을 조성 지원 등으로 다양함
- 또한 관광, 농업법인 및 산림조합 등 농림어업, 지역조성, 마을만들기 지원 등 업종으로의 취업도 활발함
- 향후 총무성은 임기 종료 후에도 정착을 희망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창업 등을 지원하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, 2023년에도 지속하여 지원할 방침임

[대원 임기 후 정착 및 창업 추이]



이 명 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

- ✓ 지역 주민들이 저밀도·분산 거주하는 농촌의 정주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적 서비스를 자율적·창의적으로 전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
- ✓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, 지역 거주 및 도시 청년이 참여하여 시행하도록 상담, 연수, 인건비 등 지원
- ✓ 농촌재생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활동가 및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전문교육과정 운영

3) 농민신문(2018.6.27.) 30년 침체의 길 건너 일본 마을, 활력 되찾은 비결은?

4) 한국농촌경제연구원. 2023.2.6.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.5.